

치 사

한 해의 노력이 일구어낸 공덕과 따뜻함이 더없이 든든한 절기이기에, 결실은 나누는 것으로 더욱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열정을 다시 만나게 되어 사부대중은 감동과 축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제20회 불교언론문화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불교계는 언론매체를 통한 포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20세기 들어 방송분야에서는 1990년 세계 최초 라디오 불교방송을 개국하고, 1994년에는 불교TV가 개국하면서 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찍이 ‘사단법인 보리’는 故김재일 선생의 원력으로 1993년부터 불교언론문화상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20회를 거듭하면서 수승한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자비실천의 불교이념을 널리 알리는 것은 불교 언론문화의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자본과 물질이 우선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고 생명과 인성이 경시되어 가는 시대는 언론의 역할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가 주는 책임감은 정보의 정확성과 전달자의 올바른

시각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합니다. 나아가 대중의 소리를 열린 귀로 경청하면서 언론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단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모두 바른 언론을 위해 지중한 노력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시상을 통해 수상자 여러분의 공적을 높이 기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발전에 일조하고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교 언론문화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수불스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해 주신 여러 언론인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자비 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6(2012)년 12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